

인삼연구 및 지도의 Infra 구축 방향

박 훈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

<목 차>

1. 머리말
2. 인삼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3. 인삼연구역사 (일제 강점시대)
4. 인삼연구역사 (광복후 ~ 1996)
5. 인삼연구 Infra 현황 (1996년 이후)
6. 새로운 연구와 지도 Infra의 구축
7. 인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
8. 결 론

1. 머리말

고려인삼은 자생지가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지방으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에 내려진 천혜의 자원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약과 건강식품의 왕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름 수천년 지배하여 그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역사 이래로 국가의 기밀 산업으로 발전시켜오다가 1996년 국가 전매제에서 자유화하였고 금년에 들어 국가 주도사업이 민영화되어 연구와 지도업무 전달 기관이 없어

진 상태이다. 모든 것의 세계화라는 역사의 대 변혁기에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 인삼산업은 농업에서 선택해야 할 제1의 우선 업종이다. 이는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와 지도의 국가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인삼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의 천혜적 자원이다. 인삼자생지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 살아온 민족의 고향땅이

다. 대전과학단지로 한국인삼연초 연구소가 이사해 있을 때 대덕단지 다른 연구소를 방문하는 외국 과학자들은 거의 모두 한국인삼연초연구소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담배가 아니라 인삼분야를 보기 위해서였다. 인삼은 역사적인 우리나라 image상품으로 인삼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린다. 월드컵 4강에 진입한 것도 산삼을 기증한 바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인삼의 힘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인삼은 우리의 효 문화, 예방의학 문화, 자연주의 문화 등 우수한 문화의 산물이어서 외국인에 대한 문화사절의 기근을 갖는다. 인삼을 깊이 바라보면 동양의 최고 의서인 神農本草經 저자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다. 중국문화권의 바탕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일게 된다.

인삼은 한약의 왕이다. 그러기에 인삼발견과 더불어 5천년이 넘게 중국인의 최고의 약과 건강식품으로 애호되어 있다. 인삼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엔 성군이 난다고 믿어왔다. 중국의 산삼은 우리나라 재배삼과 대등하게 여긴다. 중국의 산양삼은 우리나라의 씨를 사용하거나 묘삼을 사용하면 효능이 높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유구한 사용의 경험 때문이다. 고려인삼 최고품은 天蓼 10支 600g 인데 280만원이다. 이것은 3년전에도 2년선돈을 받았으며, 작년부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상품목록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중국인은 인삼의 역사적 고객이다.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약처방에 우리 한국산 인삼(Korean ginseng)을 쓰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에게는 처방할 수 없다고 중국한의교수가 말한다. 중국 젊은이들이 2001년 가을 김포에 와서 밭에서 삼을 사가지고 갔다. 진짜의 한국삼을 사가기 위해서다. 이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대전 우주 과학연구소에 온 젊은 중국 과학자가 100만원 어치의 홍삼제품을 사달라고 부탁 받아 사준 적이 있다. 그는 나를 통하

면 틀림없는 고려인삼 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 13억 인구는 관습상 1년에 한근의 인삼을 먹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한국산 인삼으로 먹고싶을 것이다. 최고품이 생산되는 원산지가 있고 중국인에게 이것을 철두철미하다.

세계 의약계는 예방의학 즉 식습관의 생활습관으로 질병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건강식품의 중요성 인식이다. 대체의약의 성행이 그 때문이다. 고려인삼수요는 동양권에서나 서구권에서나, 기타지역에서나 계속 확대 될 것은 분명하다. 인삼이 국가주도의 기밀 산업으로 키워왔던 것은 그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1908년 홍삼전매수입이 665,115원으로 세입 총액의 21%였다. 현재는 자유화 되었으므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었다.

인삼은 한 칸에 (3.3㎡) 54주를 심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 열 뿌리만 天蓼로 하여 600g이 되게 한다면 칸 당 20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인삼재배기술은 아직도 바닥에 있다. 좁은 농토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쌀과 콩과 깨와 고추, 마늘 등등으로 왜 중국과 싸워야 하겠는가.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인삼이다. 인삼을 다시 바라보고 배우자.

3. 인삼연구역사(일제강점시대)

우리나라의 인삼재배연구역사는 현재의 고도로 발전된 재배방법으로 볼 때 재배를 해온 선조들의 꾸준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연구, 특히 정부가 주도한 연구는 서양의 방법을 도입한 일제강점기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인삼 재배 관련 주요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1907 (純宗1년)

- 인삼재배와 병해연구로 三宅驥 - 박사를 촉탁

1908

- 권업모범장技師 町田?吉이 인삼적부병원세균을 발표
- 度支部司稅局에 蔘政課를 신설하고 개성에 출장소를 두었다. 인삼 경작 방법의 합리적 지도, 병해의 연구, 병해
- 충혜의 예방과 방제의 지시 실행, 病根의 치료 묘포의 공동소득, 수삼 배상 가격의 결정, 그 배상금의 前渡, 홍삼 제조 방법의 시험과 개량, 우량경작자의 장려등에 착수 실행하였다.
- 度支部令으로 홍삼원료 경작 구역을 경기도 개성, 장단, 풍덕의 3군과 황해도 금천, 토산, 평산, 서흥, 봉산의 5군을 지정
- 東京帝大農大 白井光太郎가 한국의 인삼 병해에 관한 연구발표
- 농사시험장 기사 上田次朗가 촉탁이됨, 인삼적부병의 연구발표

1909

- 삼묘의 검사 소득의 실행, 토성의 연구 수행

1910

- 2월『인삼예찰시험성적보고』2년간의 연구 보고서 발간, 기사 富家正義, 기수 園部剛二郎
- 만주, 일본, 미국 등 사람을 파견, 인삼경작의 시찰조사
- 조선총독부 전매국 개성출장소로 변경

1911

- 『미국삼업조사서』 발간, 전매국 기사 富家正義와 촉탁 三宅驥一の 전년도 보고서

1912 (명치45)

- 『인삼병해연구의 一端』 총독부 사세국 전매과 개성출장소 발간

1914(대정2년)

- 『인삼시작성적보고』 제1호 발간, 개성출장소

1921

- 경성 전매지국 개성출장소로 개편

1922

- 권업모범장 기사 中田覺五郎 기수 瀧元清透 인삼각종 병해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

1925

- 전매국 개성출장소 (삼정사무의 本局직할체제) 『인삼채종과 보르도액 살포가 근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발간

1928(소화 3년)

- 『인삼에 관한 연구보고』 제2, 3호, 개성출장소 발간 (3호는 기상과 작항)
- 『조선작물병해목록』 인삼병해 연구삽입, 권업모범장발간
- 경성제국대학(약리학교실) 교수 의학박사 杉原德行 전매국 촉탁으로 함 2月 高永珣의 조선인삼 내복에 의한 뇨량의 감소에 대한 연구를 발표

1932(소화 7년)

- 전매국 인삼사발간기획 今村병을 촉탁에 임명

1936(소화 11년)

- 『인삼사 제4권』 인삼재배편발간
- 경성제국대학 심리학교실 高月亮 太, 大塚鎧, 『조선인삼의 효력이

백서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발표

1937

- 경성대학 예과 竹中要 『인삼염색체에 관한 연구』 발표

1938

- 『인삼사 제6권』 인삼잡기편 발간

1939

-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를 개성에 설치, 인삼연구를 주목적으로 함

이상의 연대별 주요연구 관련 사항과 인삼사제 6권 인삼에 관한 제종과학적 연구를 보면 재배연구는 개성출장소에서 평산시험장(황해도)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수행하고 또는 西산농사시험장과 협동으로 수행하였다. 권업모범장에서는 병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였다.

4. 인삼연구 역사(광복 후 ~ 1996)

1945년 광복이 되었으나 개성출장소의 연구 결과물들은 전매청으로 이관된 것 같지않다. 광복 후 15년간 인삼연구를 주관하는 정부기구가 없었다.

1961년 전매청 중앙전매기술연구소에 인삼기술과가 설치됨으로써 인삼연구의 독립단위가 발족한 것이다. 1975년 전매기술 연구소의 인삼 연구실은 인삼 경작연구실과 인삼 약리실로 분리 개편하고 재배연구는 주로 관천시험장에서 수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진흥시책에 의하여 전매연구소에서 인삼연구분야가 분리하여 1978년 4월 재단법인 고려인삼연구소가 특정연구기관으로 대통령이 설립자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박 대통

령은 수출주도경제를 촉진하였으므로 인삼산업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인삼 포장에까지 신경을 썼다. 인삼산업을 위한 one stop service의 정부지원을 위하여 인삼 검사소를 인삼연구소에 두도록 계획하여 1980년에 실현되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박 대통령이 시해되고 연구활성화 정책이 중단되면서 1981년 1월 한국연초연구소와 통합되어 한국 인삼연초연구소로 통합되었다. 인삼연구는 주로 중평시험장과 수원경작시험장 및 음성시험장에서 수행되었다. 1993년 한국 인삼연초연구원으로 개편되면서 과기처와 전매공사의 이원적 지원체계에서 전매공사단일지원체제로 되었다. 공사체제하에서 계속 연구인력은 계속 축소되었으며 1996년 홍삼전매가 자유화되면서 인삼에 관한 행정이 농수산부로 이전되어 인삼재배연구는 급격히 축소되게 되었다. 인삼과 담배의 재배분야가 한때 진흥청으로 이관되어 연구원들도 이동되었다가 간 사례가 있다. 그러나 1996년 조처는 인삼행적업무만 이관되어 연구업무의 이관은 공중에 떠버리고 말았다.

5. 인삼연구 Infra현황 (1996년 이후)

1997년 IMF를 계기로 현 정부는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연구와 행정의 구별없이 65세에서 61세로 퇴직연령을 단축시키고, 2002년도에는 61세에서 58세로 재차 단축시킴으로써 인삼 연구자들이 몇 명 남지 아니하였다.

금년 7월 1일자로 한국 인삼연초연구원이 담배인삼공사 중앙연구원

으로 개편되어 완전한 사기업 연구소로 되고 말았다.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공익적 부분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이관이 전무한 상태로 변화되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삼연구의 Infra구축에 비상식적 상황이 되어 있다. 인삼연구에 관한 국가적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지도의 Infra, 국가적 Infra구축에 연속성이 사실된 상황이다. 물론 1996년 이후 대학과 식품연구에서의 생화학적 연구, 효능연구와 제품개발 연구 등이 미미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삼을 이해하고 진행되는가에 큰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연구자는 진지하고 신비감에 쌓여 있다 해도 반복 또는 모순의 연구가 되기 쉽다.

1996년 이후 한국 인삼연초연구소의 인삼분야의 축소는 그 이후 풍기인삼시험장의 설립, 금산농업기술센터의 인삼연구부의 강화, 진안에 소재한 근부작물 연구소의 인삼연구강화 등 변화가 있으나 고려인삼연구소의 규모에 못 미친다. 풍기와 금산은 각개의 중요 백삼산지로서 각 지역의 특수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한 인력이다. 중앙대학교(안성학원)에 인삼산업연구센터가 발족되었으나 6년간의 국가연구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재배, 가공, marketing을 포함한 다분야간 공동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라는 방식은 좋으나 전임연구교수가 5명에 불과하여 원활한 연구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6. 새로운 연구와 지도 Infra의 구축

『고려인삼센터』의 위치 :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Infra 구축의 현재 조건은 대단히 좋다. 수원경작시험장은 정부자산으로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삼산업계는 one stop servic 기관을 갈망하고 있다. 인삼의 산업적 중요성을 볼 때 인삼산업에 관련된 다기능센터가 필요하다. 현재의 추세는 주제별 다기능센터(multi-functional cluster)가 필요하다. 인삼의 재배와 지도는 물론 품질검사, 가공, 제품개발, 수출까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국고객이 와도 국내생산자가 와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연구원과 지도사』: 현직에 있는 한국 인삼 공사의 중앙 연구소 연구원들을 희망에 따라 채용한다면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그러나 희망자가 없거나 적을 때에는 현재 진흥청 산하 각 분야(병충해, 토양, 미생물, 분석화학 등)의 연구원들을 희망에 따라 인삼연구직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지도사들도 우선은 소수를 희망에 따라 인삼전문직으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연구 know-how의 이전』: 인삼의 한 작기는 8년으로 본다. 그러므로 인삼연구의 know-how의 축적은 빠르지 않다. 새로 시작하는 연구원은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기존의 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부터 전수를 받는 것이 좋다. 수원경작시험장을 고려인삼센터로 만들고 새로운 연구원을 배치하여 기존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한국 담배 인삼 주식회

사의 중앙연구소가 몇 년간 연구소를 공유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미 퇴직한 연구자들을 겸직연구원 또는 자문단으로 활용하여 적은 경비로 연구에 참여시켜 연구 know-how를 전수 받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다. 연구방법수립과 수행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20년이 넘게 입력된 컴퓨터를 재할용 할 가치는 충분하다.

『연구정보체제확립』: 1961년 전매 중앙연구소 때부터 2002년까지의 인삼관련 연구보고서, 연구문헌집, 심포지움집, 세계인삼문헌 초록집 등 일체의 인삼관련 출판물은 국가 연구기관인 고려인삼센터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조치중의 하나이다. 인삼산업을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영구히 보존해야만 한다. 연구보고서에는 학회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과거의 인삼연구보고서가 있어야만 새로운 연구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실험을 하게 되어 막대한 시간과 경비의 손실을 초래한다.

『인삼 재배 실습장』: 젊은 인삼재배 지원자들을 체계적으로 실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습장을 만들고 운영한다. 이들은 양질삼 재배의 고도기술능가로 정부의 장기용자지원으로 연차적으로 연도별 숫자를 정하여 육성하면서 그들의 농장을 현지 포장 실증실험 장소로 활용하는 연구의 외연협력체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연구와 지도와 생산의 3단계를 초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다년작 인삼에서는 효율적 제도이다. 물론

실습장은 기존 재배자 누구라도 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 되어야 한다.

수원경작시험장이 인삼연구소로서 적합한 것은 양질삼 생산지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이기 때문이며 또 농업 연구기관들이 수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삼문화센터』: 인삼 박물관은 날로 인삼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영화관, 요리전시실과 식당 인삼제품 전시관등 외국 바이어와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의 유구한 문화를 알리고 인삼 고객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에 따라 후에 건립해도 된다. 수원 경작 시험장의 자리는 서울에 가깝고 수원 화성과 용인의 민속촌 등 관광객을 유치할 좋은 거리에 있다. 시스오까의 Tea center는 茶文化가 일본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삼이 茶와 비교될 바가 아니다.

『인삼 convention center』: 국제 인삼 심포지움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 국내인삼 산업계 각 분야가 인삼산업의 앞날을 위하여 같은 사업분야별 또는 타분야간 (관,산,학,연) 자주회의를 가져 인삼산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모두 합의에 도달하여 힘을 모아야만 산업발전이 달성된다.

7. 인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

인삼산업의 장래를 위하여 정부가 발전적으로 조치를 취할 절호의 시기이며 여건이 무르익었다. 뜻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경비는 거의 필요치 않다. 이르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두가 인삼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함을 최근의 몇 가지 오해의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인삼 (ginseng)은 panax ginseng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이다. 진흥청에서 최근 발간한 인삼 재배법이나 금산인삼센터나 유통공사, 인삼공사 등을 통계자료 등에서 다른 panax들을 모두 인삼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ginseng(인삼)과 seng(삼)을 혼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오류는 ginseng 이라는 Brand name을 상실하고 도용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삼학회의 이름부터 Korean Society of Korea Ginseng (고려인삼학회)가 인삼을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다. 서양삼 (panax queinqueoli)은 우리인삼의 세계시장점유율이 2.8%로 적어지는데 대한 주요인이기도 한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서양삼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서양삼은 30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약처방에 사용할 수 없다. 인삼 대신 서양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칠도 용처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panax라는 단위만으로 같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역상 의무수입에 있어서 인삼으로 취급해 전칠이나 미국삼을 들여 올 수 없다. CODEX에 있어서도 인삼, 서양삼 전칠이 달라야 한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서양삼을 인삼과의 효능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효능비교를 성양삼 상인들이 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연구를 위해 하더라도 그것을 비교해서 발표할 필요는 없다. 인삼은 서양삼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유일인삼(the only ginseng)이지 최량의 인삼(the best ginseng)이 아니다. 비교를 하면 그 자체로 비하되는 것이다. 비교는 시료의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논쟁의 씨앗이 된다. 역사가 다른 것을 왜 비교해야 하는가. 역사적 이해가 화학적 또는 약리학 적 이해의 필요성의 한계와 그 공개의 필요성 한계를 잘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당뇨에 대한 인삼 효과는 이미 알려지지 오래된 것이다. 1억이 넘는 연구비를 외국학자에게 주고 당뇨 시험을 부탁하여 국제 인삼 심포지움에 초청해 효능발표를 부탁하였는데 그 학자는 서양삼의 결과만을 발표하였다. 고려홍삼결과는 나오지 아니한 모양으로 예상되는 결과만 발표하였다. 예상되는 결과만 가지고 국제학회에 논문을 내고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가 훗날 다 입증해줄 것이므로 그렇게 해주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우리의 인삼연구를 그렇게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가? 왜 돈을 들여서 판을 버리고 서양삼을 선전하게 하는가? 다음에 네 것을 선전해줄게라는 약속 때문인가?『인삼은 한국』이다 라는 역사적 인식에 혼동의 돌팔매를 던지는 격이다.

인삼연구에 있어서 국가연구비의 분배는 인삼산업 전체를 이해하는

위치에서 상식적 수급이 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연구소가 필요한 것이다. 인삼 연구의 선택에도 상식이 통해야 한다. 정부연구비가 재배 인삼잎의 자원화 연구에는 가지 않고 자원이 없는 산삼잎의 자원화 연구에만 분배되었다. 인삼연구 전문가들(기관 내외부를 망라한)로 구성된 국가주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 심사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과는 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연구착수의 1,2년 선후가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인삼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 원료삼의 증산이고 원료삼의 안정적 생산체계의 확립이다. 그럼에도 정부연구자금이 유전자연구와 가공, 유통 쪽으로 쏠리고 있다. 개인회사의 씹씹이를 말하긴 어렵지만 광고비로 연간 수십억원을 쓰는 것은 인삼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세계여자바둑대회에 들어갈 4억을 후손들이 두고 두고 자랑할 세계적 인삼센터의 건립을 위한 씨알돈으로 들 수는 없을까.

생산농장표시가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GAP). 생산품의 질이 좋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장 신용이 있는 상품이 될 것이므로 광고비의 일부를 잘라 생산품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고려삼 재배와 품질관리는 수 천년 전부터 생산지 표시로 된 것인데 사업주가 original government packing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인삼을 바로 보는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닐까.

고려인삼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합일될 때까지 고려인삼의 진면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논의하는 기회와 장소를 마련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고려인삼센터가 필요하다.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국가를 이를 조정해가는 가장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고려인삼은 한약초의 왕이므로 장차 고려인삼센터에서 한약을 연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8. 결론

지구 한 장터의 시대에 진입한지 여러 해가 되었다. 농업도 국제화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의 농업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몇 가지로 분명하다. 그 중의 하나가 천혜적 자원이며 독점적 자원인 인삼 산업이다. 인삼은 예로부터 국가재정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기밀산업으로 되어 왔으며 1996년에서야 국가전매제 산업에서 자유화되었다. 국가적 중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발전 시켜야겠다는 시책이었음에도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이 있는 학계는 전공이 다른 까닭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국가기관은 인삼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은 국가적 이익보다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인삼산업 발전의 체계 구축이 광복 후 15년의 공백과 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고려인삼의 반만년 고객인 중국의 발전과 예방 의약과 대체 의약의 붐

을 타고 있는 세계시장은 고려인삼의 폭발적 수요를 예언하고 있다. 수 천년 국가 기밀 산업으로 지켜온 인삼산업이 민영화되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연구와 지도의 기능을 담당했던 한국 인삼 연초연구원이 금년도 7우러부터 민영화되었다. 인삼 산업의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발전적 재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조조정으로만 충분히 역사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구 한국인삼 연초연구원 수원 경작시험장을 고려인삼연구센터로 만들어 인삼의 생산 연구와 지도 및 정보보관 및 분석연구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연차적으로 인삼산업(가공, 검사, marketing) 전반에 관한 one stop service가 가능한 인삼산업센터와 인삼 박물관 등 문화센터로 키워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진흥청 산하에 수원경작시험장을 고려인삼연구센터로 만들어 현재의 진흥청 연구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희망에 따라 고려인삼연구센터로 만들어 현재의 진흥청 연구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희망에 따라 고려인삼연구센터로 전보 발령하고 지도 부서를 두어 지도를 담당케 한다. 인삼연구는 1작기 8년이라는 장기간의 특성으로 하여 기존 연구 보고서 등은 반드시 인수되어야 하겠다. 기존의 연구 전문가들을 축약연구원 또는 자문기구에 흡수하여 국가의 예산부담을 최소한으로 한 연구 know-how의 전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